



ESG 대출 글로벌 최우수 은행 · 단기투자상품 글로벌 최우수 은행

세계가 인정한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MARCH 2025 Vol.240

CEO REPORT

MONTHLY CEO

반도체 장비용 핵심 부품 제조기업
(주)디에스테크노 안학준 대표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MARCH 2025 Vol.240



CEO Report 웹진

발행일 2025년 3월 5일 통권 240호
등록번호 서울중 라 00429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서경란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Tel 02-729-6461
기획 IBK경제연구소

※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SPECIAL REPORT

- 02 **THEME**
인구 오너스
- 04 **SPECIAL ①**
시니어 천만 시대 ‘에이징 테크’ 키워
위기를 기회로
- 08 **SPECIAL ②**
고령화 선진국 된 나라들
‘영올드’에겐 공통점 있었다
- 12 **TABLE TALK**
기업들 ‘슈퍼 그레이’ 공략법은?
“노인 맞춤 앱-헬스케어 브랜딩을”



ECONOMY

- 18 **MONTHLY CEO**
반도체 장비용 핵심 부품 제조기업
(주)디에스테크노 안학준 대표
- 24 **START-UP**
크레플(주), (주)크랩스, 원라인에이아이,
휴캠브레인, 로보스
- 28 **MARKETING**
‘디지털 기술’로 다시 살아난 옥외광고
- 32 **TAX**
배당을 활용한 법인기업 절세 방안
- 34 **IBK EXPLORING**
중소기업의 상생 금융 파트너
IBK기업은행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 36 **GLOBAL ECONOMY**
지금 세계는:
- 38 **INDUSTRY TREND**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CULTURE

- 40 **LAW**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정신계 질병 발생,
산업재해가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요.
- 42 **MOVIE**
영화 <인터스텔라>
푸른 행성의 약속
지속가능성을 향한 리더십의 여정
- 44 **ESSAY**
시간의 소중함…잘 늙음에 대하여
- 46 **WORK OUT**
현대인의 고민,
튼튼한 허리를 유지하려면



인구 오너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늘며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인구 오너스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성장이 전망되는 미래 산업 트렌드를 알아본다. 또한 경제력 있고 활동적인 시니어 계층을 뜻하는 슈퍼 그레이 등 달라지는 인구구조에 맞춰 새롭게 공략할 만한 소비 계층 및 연관 산업을 살펴본다.

- 02 THEME
인구 오너스
- 04 SPECIAL ①
시니어 천만 시대 '에이징 테크' 키워
위기를 기회로
- 08 SPECIAL ②
고령화 선진국 된 나라들
'영월드'에겐 공통점 있었다
- 12 TABLE TALK
기업들 '슈퍼 그레이' 공략법은?
"노인 맞춤 앱-헬스케어 브랜딩을"

DEMOGRAPHIC ONUS

시니어 천만 시대 ‘에이징 테크’ 키워 위기를 기회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집계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2만 1,286명의 20%를 넘어섰다.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우려됨과 동시에 의료 시를 앞세운 실버 헬스케어 등 에이징 테크 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인구 오너스 시대, 기업은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

Profile. 이제경

- 100세경영연구원 원장
- 전 매경이코노미 편집장
- <인생을 바꾸는 100세 달력> 등

인구 오너스 시대 속 新생산연령인구

한국이 2024년 12월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럽연합(UN)이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는 가운데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가 됐다. 경제 성장의 핵심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이다. 그런데 초고령사회에서는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고 자본축적도 감소하기에 경제가 위축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희망이 없지는 않다. 초고령사회에서도 경제 성장의 동인(動因)은 바로 생산성이다. 노동과 자본이 기술과 결합하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

자 많은 사람이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를 걱정한다. 생산연령인구와 자본축적이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에 탄력을 받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와 달리 인구 오너스 시대엔 생산연령인구와 자본축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다. 두려움(Fear)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False evidence appearing real)’라는 말이 있다. 늘어가는 노동력과 줄어드는 자본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면 경제 성장은 가능하다. 노동과 자본이 열

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역발상으로 접근하면 기회가 열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에게 는 베이비붐(1955~1963년생)세대가 있다. 이들이 산업 현장에 다시 뛰어들면 ‘新생산연령인구’가 될 수 있다. 베이비붐세대는 숙련된 노동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보통신을 다루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만 습득하면 얼마든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역군으로 다시 뛸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붐세대에 속하는 이들에게는 국민연금과 함께 그동안 축적한 은퇴자금도 있고,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다. 상

당한 소비력이 있다는 얘기다. 이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환경만 구축된다면 초고령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선진국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높은 게 현실이지만 부동산 형태의 자산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노령층의 소비 능력은 그리 나쁘지 않다. 비록 근로소득이 없고 연금소득이 부족해도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시킨다면 얼마든지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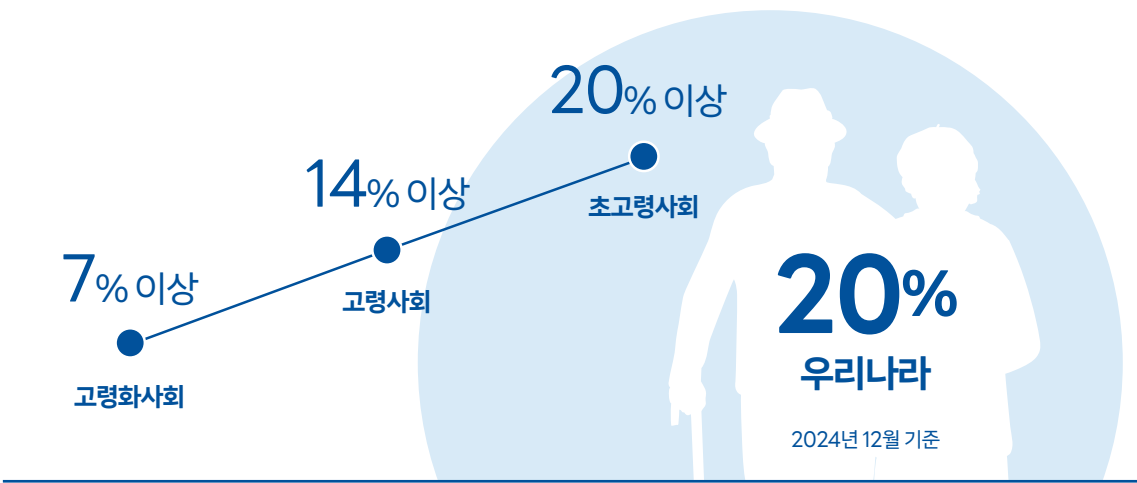
실버경제와 고령친화산업에 집중해야 할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초고령사회를 두려움의 존재로 보면 ‘인구 오

너스'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인구 보너스'가 될 수 있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 20%지만 50세 이상 인구 비중은 이미 40%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5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이들은 '실버경제(Silver Economy)' 또는 '장수경제(Longevity Economy)'의 핵심이다. 고령인구가 증가할수록 실버경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 고령층의 증가에 따라 전체 소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일로에 있다. 50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소비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60%에 달할 전망이다. 고령층의 인구 비중보다 소비 비중이 더 큰 이유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축적 자산이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비 여력이 있는 셈이다. 기업들이 실버경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실버경제 중에서도 고령자만을 위한 산업, 즉 고령친화산업도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다. 고령친화산업은 실버경제의 한 축이다. 실버경제는 고령층의 자체 소비와 정부 지출

을 모두 합친 경제활동을 말하는 반면 고령친화산업은 순전히 고령층만을 위한 특화된 산업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고령친화산업은 실버경제에 속하지만 실버경제가 모두 고령친화산업은 아니다. 좁은 의미로 고령친화사업을 보면 고령친화 용품 제조업, 고령친화 요양서비스업, 고령친화 주거서비스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고령친화산업은 그동안 생각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고령층의 소비력이 탄탄하지 못했고 정부 주도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고령친화산업과 실버경제를 키우기 위해선 정부 예산에 기반한 복지 차원이라는 시각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민간 영역이 진입하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한 가지 예로 프리미엄 실버주택이 있다. 실버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는 넘쳐난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프리미엄 실버주택의 임대만 허용하고 분양을 금지한 탓이다. 임대주택 방식으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이 시장의 진입을 외면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인구구조 분류 (65세 이상 인구 비중)



국내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 및 성장률

(단위: 억 원, %)

구분	2021년	2022년	성장률
용품 제조	40,494	44,501	9.9
의약품 제조	108,517	119,337	10
의료기기 제조	18,090	23,681	30.9
식품 제조	44,696	49,371	10.5
요양 서비스	104,882	118,895	13.4
여가 서비스	34,541	51,764	49.9
주거 서비스	2,005	2,138	6.7
급식 서비스	1,354	1,937	43.1
금융 서비스	357,540	406,919	13.8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23. 12.)

새로운 사업 기회, 에이징 테크

경제력을 갖춘 705만 명의 1차 베이비부머가 이미 실버경제에 진입했고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도 서서히 실버경제에 편입되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 비해 수요 기반이 갖춰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3년에 발표한 <고령친화산업 제조 서비스업 실태조사 및 분석>에 따르면 여가서비스업과 급식서비스업은 고속 성장을 했다. 2021년 대비 2022년 성장률이 각각 49.9%와 43.1%에 달했다. 다음으로 의료기기제조업(30.9%), 금융서비스업(13.8%), 요양서비스업(13.4%), 식품제조업(10.5%), 의약품제조업(10.0%), 고령친화 용품제조업(9.9%) 순이었다. 국내 실버경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주변으로 시야를 넓혀보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과 빠른 속도로 고령층이 늘어나는 중국이 우리 곁에 있다. 미국 은퇴자협회(AARP)가 분석한 주요 국가의 실버경제 추정치를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3배, 중국은 무려 5배에 달한다. 2030년 기준으로 일본의 실버경제 규모

는 우리의 3배로 지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중국은 10배로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엄청난 실버경제 시장을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에이징 테크 산업을 키워야 한다. 정보통신, 로봇, 모바일,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실버경제에 접목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노려야 한다. 실버경제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홈 장치, 웨어러블, 디지털헬스, 일상 관련 장치 및 시스템, 사회 연결 커뮤니티 등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발 앞서 있지만 초고령사회를 먼저 맞이한 우리나라가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낸다면 충분한 시장이 확보될 것이다. '인구 오너스'의 불안을 떨쳐내고 '인구 보너스' 시대를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정의 협력이 절실하다. 1차와 2차 베이비부머를 합치면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춘 1,600만 명에 달하는 '신생산연령인구'가 버티고 있다.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더 이상 '절대인구'가 중요하지 않다. 📺



HOVO에서 교육 받는 시니어들

고령화 선진국 된 나라들 ‘영올드’에겐 공통점 있었다

해외에서는 인구 오너스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발표 후
대대적인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찌감치 인구 오너스
시대에 진입한 일본이 대표적인 예다. 일본을 포함해 독일,
호주 등 각국의 대책 수립을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Profile. 신무경
-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열차 배차 간격을 줄이는 프로젝트가 2029년 마
무리되니 최소한 그때까지는 일하지 않을까요.” 지
난해 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근교 위트레흐트에서
만난 건축 설계 엔지니어 얀 브뤼넬 씨(73)는 ‘언제까
지 일할 생각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
다. 한국에 있었다면 은퇴를 두 번은 더 했을 나이.
한두 해도 아니고 일할 날을 5년 더 내다본 점에 다
소 놀라자 얀 씨가 말했다. “전 직장에서 나보다 한
참 젊은 회사 사장이 ‘언제까지 일할 생각인가’라고
물어서 기분이 나빴어요. 못마땅해하는 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관뒀지요.” 질문이 머쓱해지는 순간이었
다. 현재 작업 중인 스키폴-니에미인 열차 프로젝트
부터 암스테르담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52호선 전철,
운하 주차장, 라이든 일대 병원 건물 등 도시 곳곳에
그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다. “제게 일은 나만의 기
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기술을 찾
아서 최적의 장소에 쓰이게 하는 것이죠. 최고의 기
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은 두말할
것 없고요.” 지난해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네덜란
드, 독일, 영국, 일본, 호주 등의 ‘영올드(Young Old·젊
은 노인)’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일 그 자체
에 대한 욕심과 소명 의식이 있고 사회적 가치 창출
에 적극적이라는 측면이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모습
도 눈에 띄었다. 자본과 건강을 갖춘 영올드를 대상
으로 제반 편의시설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하우
징 비즈니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고령 사회엔 은퇴란 없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은행원 출신 벨리 아
부다크 씨(68)는 두 해 전 정년을 맞았지만 금융회사
에서 현역으로 재직 중이다. 튀르키예부터 한국까
지 다양한 나라에서 온 회사들의 현지 적응을 위해
일종의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여느 2030 직장인들

처럼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를 뚫고 금융 중심가로 출근한다. 아부다크 씨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며 공부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얻게 됐다”라고 말했다. 일본 도쿄에서 만난 중학교 교사 출신 시노미야 마사요 씨(70)는 사회 담당 강사로 재취업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은퇴 전보다 월급(17만 엔)은 절반 정도로 줄었지만 만족도는 더 높다. “정규직 담임 교사로 일하는 것에 비하면 책임이 줄었고 학부모와 부딪칠 일도 적어 스트레스가 덜해요. 휴일도 많아졌고요. 여유가 생긴 덕분 일까요. 웃는 얼굴로 학생들을 대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일까. “누구의 할머니, 아내보다 선생님이로 불리는 데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려는 거예요.”

이 같은 분위기는 사회적 제도와 기업의 노력이 뒷받침된 덕분이기도 하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정년 제도를 사실상 없앴다. 독일은 현재 정년 만 65세를 2029년까지 만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일본도 65세 고령자 의무 고용 조치(2012년) 실시로 정년이 사실상 65세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생애 설계 서비스를 출시한 사례도 있다. 2020년 영국 노동연금부는 중장년층이 노후 준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재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미드 라이프 모트(Mid-life MOT)을 내놨다. MOT은 차량 정기 점검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장년층이 스스로 삶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독일 기업 보쉬는 기술력 유지를 위해 시니어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령 근로자에게 교육, 멘토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영국 보험사 아비바도 고용 인력 3분의 1 이상

을 50대로 구성하고 있다.

공부는 기본, 돈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

“2016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최근에는 영국 크로이던 지역 U3A(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은퇴자 학습공동체)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해서 하루가 너무 바빠요(웃음).” 지난해 말 만난 영국의 제니퍼 윌슨 씨(70)는 2016년부터 U3A 활동에 여념이 없었다. 퀴즈 나이트(술집에서 퀴즈를 풀며 시간을 보내는 일)부터 태극권 모임, 온라인 요가 클래스, 환경·기후 위기 그룹까지... U3A는 회원 수 40만 명, 산하 소규모 그룹만 1,000곳이 넘는 대형 노인 커뮤니티다. U3A는 단순 친목 도모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000여 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영국 옥스퍼드대 지원을 받아 제2차 세계대전의 일상 이야

—
사회 담당 강사로 재취업한
시노미야 마사요 씨



—
영국 헨리온템스에 거주하는
캐런 그리브 씨



기와 물건을 담은 온라인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기도 했다. 세계대전을 경험한 당사자들의 일상을 다각도에서 생생하게 담아낸 것이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영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글로벌 영올드들은 학업에도 진심이다. 취재진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 본관 지하 2층 강의실에서 마주한 수강생 40여 명은 60대부터 100세 임박한 이들과 연령대가 다양했다. 이날 수업 주제는 천문학. 머리가 희거나 술이 없는, 돋보기를 코 아래로 내려쓴 영올드들은 이른바 ‘별의 법칙’을 탐구하는 데 그 누구보다 진지했다. 이 강의는 레이던, 틸뷔르흐 등 네덜란드대학 5곳이 운영하는 노인을 위한 고등교육(HOVO) 프로그램 중 하나다. HOVO는 고령층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지식을 찾고, 자기계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암스테르담자유대에서만 7,000명의 시니어가 이 같

은 수업을 듣고 있다. 네덜란드 전체로 넓히면 2만 5,000명에 달한다. HOVO 관계자는 “노령층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바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니어 리빙 시장 확대

영올드의 건강한 삶은 커뮤니티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사회생활에 활발하던 중장년층 시절에 비해 은퇴 후 만나는 사람의 수가 단절돼 고립감을 느껴 삶의 의미를 잃는 경우가 많은데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자아와 새로운 꿈을 발견해 내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다. 대학 캠퍼스 내에서 강의부터 피트니스센터까지 이용하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퇴자 주거 단지의 시초인 미국에서는 현재 100개 이상의 UBRC가 조성돼 있다. UBRC가 대학뿐 아니라 호기심 넘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영올드에게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는바 2032년에는 400여 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과 돌봄 서비스 등을 결합한 시니어 리빙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취재진이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서덜랜드 은퇴자 거주 마을(BUPA)에서는 수중 에어로빅, 공예 수업, 카드게임 등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설새 없이 열렸다. 린 씨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 데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영국 헨리온템스의 개인 회원제 클럽 필리스 코트에서 만난 캐런 그리브 씨(70)도 “우리 지역 노인들은 운동이나 취미, 동호회 활동에 열심이다. 삶을 즐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

기업들 ‘슈퍼 그레이’ 공략법은? “노인 맞춤 앱-헬스케어 브랜딩을”

지난해 12월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집계돼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0%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2024~2026년 2%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 국가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진 이때, 3명의 전문가가 국내 중소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을 분석했다.



백상경

동아비즈니스리뷰
기자

황용식 진행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조한중

서울시
강서50플러스센터 센터장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좌담 내용은 좌장 및 패널의 개인 의견이며 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인구 오너스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이며 대응 방안이 있다면.

백상경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2024~2026년 2%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2040년대 후반 추세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경기 불황과 자본 투자 둔화 등의 현실이 작용한 측면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구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경제 성장이 둔화할 가능성이 커져 국가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2050년대엔 성장률이 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68%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한중 저출생·고령사회로 인해 노동력 부족 및 생산성 저하,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 복지 부담 증가와 세대 갈등 확대 가능성, 도시 집중화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있겠다. 이에 대한 정책적·산업적 대응 방안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 정책 확대, 고령층 및 여성 인력 활용 확대,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 대응이 필요하다. 또 첨단 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산업 구조 전환 및 신성장산업 육성에도 집중해야겠다. 무엇보다 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통합 돌봄 서비스 마련 등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점도 시급하다.

강성진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 참여가 가능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극단적으로 역삼각형 구조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생산인구 계층이 1인당 부담해야 하는 복지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소, 이민 증가에 의한

외국 노동력 유입,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고령층의 수요 증가에 의한 서비스 부문 수요 확대에 대한 산업 정책 대응 등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대응이 필요하다.

슈퍼 그레이(경제력과 소비력을 갖춘 시니어 계층) 부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슈퍼 그레이를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백상경 새로운 소비 주체인 슈퍼 그레이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고가 프리미엄 소비에 대한 높은 지불 의사 또한 있다. 부동산과 연금, 금융 자산을 축적한 고소득·고자산 계층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는

“기업들은 단순히 상품 개발뿐만이 아니라 슈퍼 그레이들에게 맞춘 소비자 경험 중심의 브랜딩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기꺼이 소비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웰니스, 여행, 예방 목적의 의료 등에 관심이 크다. 과거 노인과 달리 스마트폰, OTT, SNS, 이커머스 등도 적극 활용하며 디지털 친화적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이에 가장 직관적으로는 웰니스 분야의 프리미엄 서비스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며 실버테크, 스마트 디바이스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때 기업들은 단순히 상품 개발뿐만이 아니라 슈퍼 그레이들에게 맞춘 소비자 경험 중심의 브랜딩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시니어 인플루언서를 브랜드 앰배서더로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이 있겠다.

조한중 슈퍼 그레이란 ‘에이징부머’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에이징부머 대상 사업을 엔젤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에이징부머를 타깃으로 한 산업 시장에 바람이 불 것이다. 특히 1964~1974년생인 2차 에이징부머도 약 560만 명으로 은퇴가 머지않았다. 이들은 기존 실버세대와 달리 경제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시니어 친화적인 UI/UX 앱 개발과 서비스 디자인으로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과의 협업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브랜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험형 마케팅으로 경험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강성진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는 정부만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새로운 미래 유망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진출이 주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재단에 국한되는 문제가 있어서 낮은 질에도 가격이 비싼 것이 흠이다. 앞으로 기업을 비롯한 경쟁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력 있는 사업투자자들이 진출해 저렴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AI 기술이 일상 전반적으로 활성화됐다.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에이징 테크 기술과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백상경 한국의 에이징 테크 산업은 아직 규모가 작고 고령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부 돋보이는 사례를 찾으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분야에서 위로보틱스(WiRobotics)를 들 수 있다. 웨어러블 로봇인 뽀(WIM)을 통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의 보행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 보행을 통해 건강은 물론 이동권을 보장해 주고 다양한 활동의 자유까지 선사하는 에이징 테크의 좋은 예다. 올해 1월 미국에서 열린 CES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한중 디지털 헬스기업인 라이프시맨틱스(Life Semantics)의 원격 진료 플랫폼이 있다. 의료 AI 및 원격 진료 플랫폼으로 고령자들이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IoT의 경우에는 에이치로보틱스(H Robotics)가 있다. 에이치로보틱스는 재활 치료를 위한 로봇 기술과 IoT를 결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고령자들의 자가 재활을 지원한다.

강성진 KT ‘AI 원격 진료 서비스’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헬스 모니터링’이 있다. ‘AI 원격 진료 서비스’는 AI를 활용한 원격 건강 관리 플랫폼을 제공해 고령층이 가정에서 직접 건강 데이터를 측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병원과 연결까지 가능하다. ‘갤럭시 워치 헬스 모니터링’은 기기에 혈압 측정, 심전도(ECG) 측정 기능이 탑재돼 건강 관리에 유용한 역할을 한다.

의료 AI를 비롯한 실버 헬스케어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

백상경 치매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세븐포인트원은 VR 기술을 활용한 인지 개선 솔루션 ‘센텐츠(SENTENTS)’를 개발했다. 과거 추억을 회상해 뇌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원리로 고령층의 우울감을 완화한다. 또 치매 고위험군 스크리닝 솔루션인 ‘알츠윈(AIzWIN)’도 개발해 1분간 대화를 진행하면서 AI가 언어의 유창함과 의미 기억력을 분석

해 치매 고위험군을 판별한다. 돌봄로봇 스타트업인 ‘효돌’은 챗GPT를 장착해 고령층의 식사와 수면, 복약 등을 챙겨주고 음성 대화를 통해 정서적인 교감도 나눈다. 개별 기업의 기술 하나하나가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기업들이 여럿 나올 정도로 의미 있는 수준이지만 에이징 테크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진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정부 차원에서 보건당국 산하 전담 기관을 두고 에이징 테크 관련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담 육성 기관은 고사하고 그동안 집행하던 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예산을 지난해 전액 삭감하는 등 오히려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강성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및 전자산업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에이징 테크에 대한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갖고 기기를 개발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사용될 수 없다면 임상실험이 어렵고 국제 시장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의료산업에 대한 공공성의 강조로 인해 충분한 의료기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 건강검진이나 만성질환 모니터링이 단순히 건강검진 차원에서 더 나아가 병원에서 원격 의료 사업으로까지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새로 개발된 기기들이 실질적인 생활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기를 개발해 시장에서 상품화될 수 있어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한중 앞서 두 명의 패널이 언급했듯 국내 기업들은 실버 헬스케어 산업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함께 규

“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적극적이어야 할 때다. 개인별 역량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겠으며, 특히 디지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을 차츰 늘려가기를 제안한다.



제 완화, 국제 표준화 대응 등이 필요하다. 특히 실버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고령자들의 질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 및 표준화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고령층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산업과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

백상경 기업 차원에서는 고령층의 맞춤형 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의 실무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심의 재고용 시스템 마련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 2~3일 근무제, 파트타임 계약 등 고령층 특성에 맞춰 비교적 유연한 고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직무 전환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시니어 친화적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너무 이른 초고령화 속에서 한국의 고령층 상당수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봐야 한다. 퇴직연금의 10년(2013~2022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이 미국이 7.79%, 호주가 6.72%, 일본은 4.10%인 반면 한국(2014~2023년 기준)은 2.07%에 불과하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근본적인 해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조한중 정부나 기업에서는 고령층 맞춤 창업 지원, 정부 및 민간 펀드 조성 등 시니어 창업 지원 및 투자 활성화에도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세대가 살아오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역량을 지역사회나 기업에서 발휘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개인적 자아실현을 넘어 사회적 인간으로서 인구 오너스 시대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리라 기대한다.

강성진 정부는 고령층 대상 현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고령층이 시설에 가서 스스로 일을 하거나 그 시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 혹은 민간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늘릴 필요가 있다. 고령층이 집에 있지 않고 시설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면 그들의 자녀 세대인 중장년층이 직장에서도 일을 하는 데 부담이 줄어들고 비싼 시설에서 머물지 않게 돼 비용은 절감될 것이다.

반도체 장비용 핵심 부품 제조기업 (주)디에스테크노

독보적 기술로 이룬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핵심 파트너

(주)디에스테크노를 ‘우연한 기회에
창립하게 됐다’라는 안학준 대표의 겸손
뒤에는 지난 34여 년간의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이룬 전문성이 탄탄히 뿌리
내리고 있었다. 첨단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을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꾸준히,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는 (주)디에스테크노다.



성장의 동력, 독보적인 기술력

유리 실험기구 기술자로 직장 생활을 하던 안학준 대표는 서울대학교 연구원, 일본 기업에서의 기술 연수를 거쳐 1991년 디에스테크노를 설립했다. 설립 이후 1995년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 고객 확보, 1998년 ISO 9002 인증 획득 등 꾸준한 연구 및 기술개발로 마침내 2000년 (주)디에스테크노로 법인을 전환하게 된다. 법인 전환 후 (주)디에스테크노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기에 돌입한다. 슬라이스 또는 기판이라고도 불리는 반도체 소재의 얇은 조각인 웨이퍼와 닿는 쿼츠(Quartz)를 자체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쿼츠는 반도체 장비 핵심 소모 부품 중 하나다.

이후 2005년에는 실리콘(Si) 제품, 2016년에는 실리콘 카바이드(CVD-SiC)를 개발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임에도 당시에 핵심 소재인 쿼츠에 관해서는 해외 공급업체에 휘둘리고만 있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 중 어느 한 기업이라도 먼저 국산화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용 쿼츠 잉곳(Quartz Ingot)을 개발한 배경에 관해 이 같이 밝힌 안학준 대표는 원소재 자급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전했다. 수익성은 물론이며 성공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직접 해외를 오가며 사업성을 검토하고 석·박사급 개발 인력을 영입했다. 장비 하나를 디자인하고 세팅하는 데도 수억 원씩 들었다. 관련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매년 수십억 원씩 투자하는 데 큰 인내가 필요했지만 안학준 대표는 멈출 수 없었고, 멈추지 않았다. 기술을 개발해 이룬 매출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그렇게 이룬 매출은 또다시 기술개발에 투자했다. 이처럼 (주)디에스테크노는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생산 및 가공 기술, 실리콘 공구 개발 및 가공 기술, 쿼츠 열가공 기술(정밀8점 및 F/P), 홀가공 및 폴리싱 기술(레이저/드릴링), 표면처리 기술(에칭/세정), 제품 수리 및 재생 기술 등을 보유하며 반도체 장비용 핵심 부품 제조기업에서 조금씩 입지를 넓혀왔다.

CVD SiC 소재의
반도체 공정용 부품 Ring



그리고 2025년 (주)디에스테크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반도체 웨이퍼 증착 장비를 주로 제조하는 세계 10위권 반도체 장비 기업인 일본의 고쿠사이 일렉트릭과 협력해 전력 반도체를 개발한 것이다. 고쿠사이 일렉트릭은 장비를, (주)디에스테크노는 부품 개발에 힘썼다. 전기차(EV),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전력 반도체의 시장을 앞서 본 것이다. 전력 반도체는 1,700°C를 견뎌야 하는데 (주)디에스테크노가 일본의 고쿠사이 일렉트릭과 개발한 전력 반도체는 2,000°C도 견딘다. 올해는 10대를 생산했지만 점차 확대될 시장의 수요를 감안해 내년에는 50대, 후년에는 100대 등 점차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더 큰 성장을 위해 꾸준히 나아가는 원동력에 관해 묻자 안학준 대표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답했다.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R&D 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디에스테크노는 독보적인 기술로 2007년에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2010년에는 중소기업청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선정,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CVD-SiC 1호기, 2호기, 3호기를 증설했고 2022년에는 2,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Silicon 소재의
반도체 공정용 부품 Electrode



경기 광주를 시작으로 세계로 향해

(주)디에스테크노는 1991년 경기 광주시에서 대지 300평(약 990㎡), 공장 부지 150평(약 495㎡)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약 28년 후 경기 이천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하는 경기 광주시는 규제가 엄격했던 탓이다. 이천시는 제2권역에 해당하고 무엇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했다. 광주와 가까운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데는 규제 완화 외에 다른 이유도 있다. (주)디에스테크노의 고객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물리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소통하기 위함이다. 삼성전자는 이천시와 가까운 용인에 반도체 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이천시에 소재한다.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이어 고객 만족 실현을 강조한 안학준 대표의 경영 이념과 같이 (주)디에스테크노는 고객사의 요구(Needs)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며 성장해 왔다.

(주)디에스테크노는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과 연구개발 및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최적의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경기 이천시 본사에서는 기계가공, 불가공, 정밀가공, 세정 등이 이뤄지며 충북 음성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 원소재 양산 라인, 소재 1차 가공 라인인 제조 3본부가 들어서 있다. 충북 청주시에는 원자재가공팀과 국내 영업 및 고객 대응을 위한 C/S센터가, 서울 서초구에는 해외영업 및 고객 대응을 위한 C/S센터가 있으며 강원 원주시에서는 지난 1월 31일 원소재 및 응용소재 연구개발을 위한 R&D센터와 생산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문막농공단지 내 부지 7,725평(2만5,538㎡) 규모의 제조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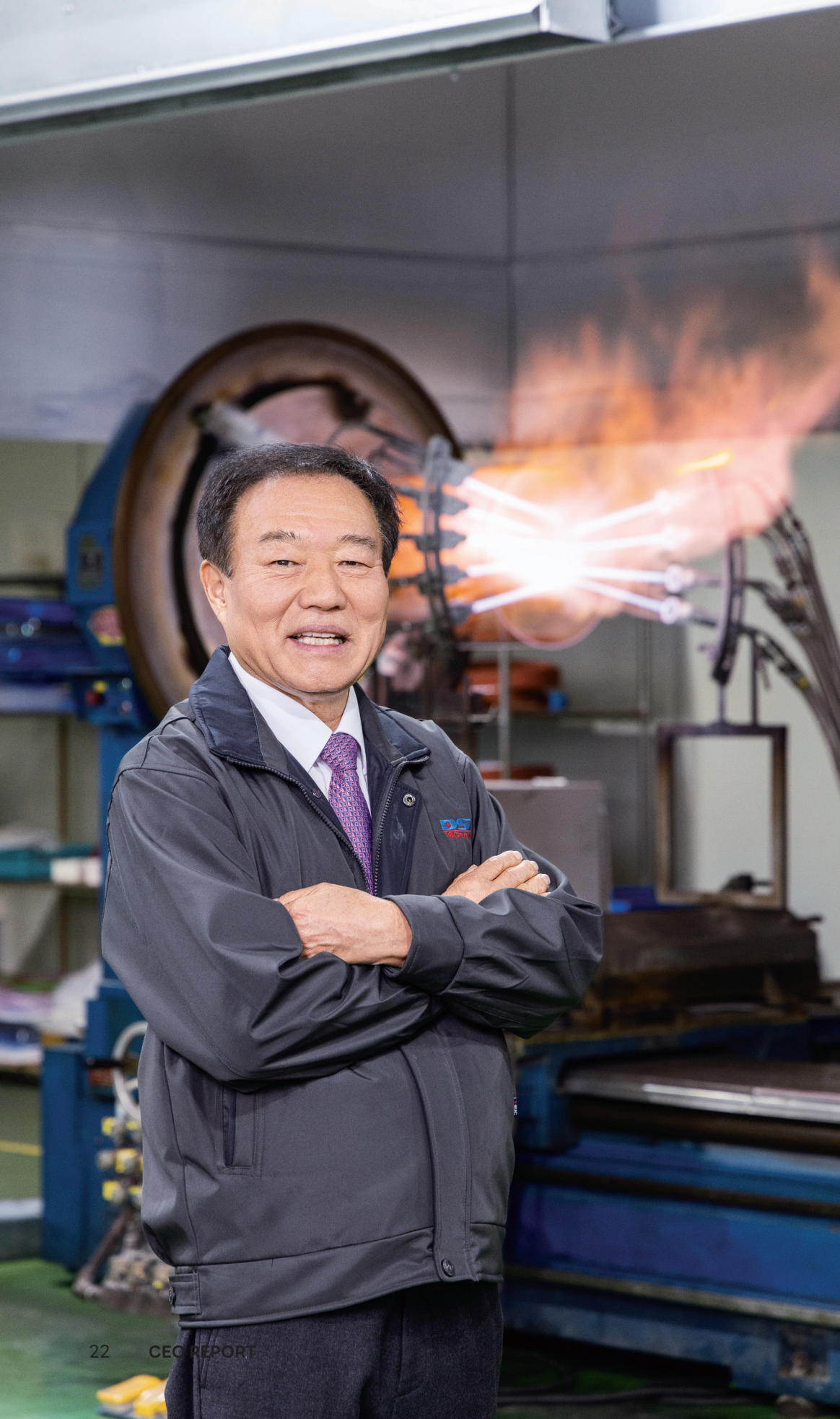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명성을 떨치고 있는 (주)디에스테크노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명성도 빠질 수 없다.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10여 개 국가에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5대 기업에 속하는 인텔, 마이크론 역시 (주)디에스테크노의 주 고객사다. 더불어 이 성과에서 멈추지 않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부품공급사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66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R&D 역량 기술 강화를 통한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99



지속가능을 위한 ESG 경영 실천

반도체 공정용 부품 제조는 반도체 공정과 같은 수준의 환경에서 제조돼야만 한다. 이를 통해 고도화된 부품만이 최신의 선단 공정에 장착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주)디에스테크노는 2023년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3년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스마트생태공장을 추진했다. 온실가스 및 지정폐기물 배출 저감, 에너지 저감, 공정 부분 자동화, 스마트 계측으로 24시간 감시 및 제어를 통한 근로자 안전 확보 및 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성을 창출했다. 이같이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갖추고자 제조환경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내부 관리를 통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 정책에 적극 참여해 컨설팅 지원을 받으며 (주)디에스테크노의 성장과 환경친화적 경영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

“2030년 매출 1조 원을 달성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주)디에스테크노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장기 목표와 함께 안학준 대표는 얼굴에 함박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러운 마음도 내비쳤다. “(주)디에스테크노가 직원들에게 자랑스러운 회사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취업이나 이직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주)디에스테크노를 선뜻 추천할 수 있고 본인의 자녀들도 (주)디에스테크노의 임직원으로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2018년 548억 원 매출에서 2024년 1,264억 원 매출까지 연평균 20% 성장하며 양적인 성과만으로도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디에스테크노의 밑거름에는 고객 만족을 위한 노력에 더해 안학준 대표의 진심 어린 경영 철학 역시 빛을 발했다. 🏆



START-UP

IBK 창공 육성기업

크레플(주) • (주)크랩스 • 원라인에이아이 • 휴켄브레인 • 로보스

CREFILE

AI 기반 시각 지능 기술로 찾는 불량 생산 부품

크레플(주) 서은석 대표

- ◎ 주요 기술 AI 기반의 시각 지능 솔루션
- ◎ 주요 제품 시각 지능 솔루션 JANUS, AI 비전 검사 및 점검 솔루션 EQ
- ◎ 홈페이지 www.crefle.com

크레플(주)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시각 지능 솔루션 업체다. 2020년 2월에 모기업인 (주)삼진엘앤디에서 사내 벤처프로그램을 통해 분사해 창업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고객사인 제조업체에 방문조차 할 수 없었던 것. 하지만 크레플(주)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연구 개발에 매진한 끝에 검사 기술을 고도화했고 다수의 MOU를 체결하며 역량을 키워나갔다. 이때 자율이동로봇용 인지 기반 RPA 인공지능 시각 탐지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창의적인(Creative) 사람과 유연함(Flexible)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팀’이라는 기업 이름의 의미다운 행보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2022년 5월 이후 크레플(주)은 JANUS 특허 기술과 EQ 특허 기술로

스마트팩토리 시장을 확보해 나갔다. 크레플(주)의 주요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의 시각 지능 솔루션이다. 이 기술을 활용해 제조업의 생산 부품에 대한 불량을 검사한다. 휴대폰·배터리 관련 부품에 대한 굵힘이나 이물질, 파손 등을 주로 찾아내는 것이다. 크레플(주)은 불량 데이터로 불량을 찾아내는 경쟁사와 달리 정상 데이터를 통해 검사기를 구축한다. 불량 데이터보다 단기간에 확보가 가능한 정상 데이터를 통해 고도화된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 기술을 활용해 검사 모델을 구축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크레플(주)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수많은 고객사가 증명하고 있다. 2022년 3개사에 불과했던 고객사는 2024년 기준 자동차 제조업체, 기계 및 장비 제품 제조업체, 정밀 화학 소재, 제약회사 등 10개사 이상이 크레플(주)과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베트남 삼성 1차사에 자동화 라인을 수출하는 성과도 이뤘다. 이 기세로 크레플(주)은 2025년 자동차 및 배터리 사업 영역 확장, 2026년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확보, 2027년 다품종소량생산 및 개인화된 자동화 솔루션 확보, 스마트팜·패션·식품과 같은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하는 등 로드맵을 계획하고 있다.

CRABS.ai

AI 동영상 분석 기술로 숏폼 동영상 자동 제작

(주)크랩스 김태영 대표

- ◎ 주요 기술 AI 기반 동영상 제작
- ◎ 주요 제품 동영상 분석·편집 솔루션
- ◎ 홈페이지 www.crabs.ai

(주)크랩스는 ‘시작은 쉽게, 결과는 특별하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당신도 크랩스만 있다면 프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용자 맞춤형 숏폼 콘텐츠 제작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 기업으로, 주요 기술로는 저비용 AI 영상 분석, 클립 기반 멀티모달 정보 인덱싱 및 장면 검색, 콘텐츠 특화 AI 에이전트 기술이 있다. (주)크랩스는 RAG 기술을 활용해 영상 내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장면을 검색하고 최적의 숏폼 콘텐츠를 생성한다. 특히 생성형 AI의 한계로 지적되던 ‘할루시네이션(AI가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숏폼 콘텐츠·라이브 커머스·디지털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개인 크리에이터부터 마케팅 에이전시, 일반 기업체,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며, 대량 콘텐츠 제작과 브랜드별 전략적 숏폼 제작을 지원한다. (주)크랩스는 2025년 상반기 베타 서비스 출시 및 PMF 검증을 시작으로, 2026년 시리즈 A 투자 유치와 엔터프라이즈 플랜 본격화, 2027년 동남아 및 일본 시장 진출, 2028년 북미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추진

해 2029년까지 글로벌 숏폼 제작 솔루션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차별화된 AI 기술로 제작 효율을 80% 향상하고 단계별 시장 침투 전략을 통해 시장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숏폼 시장 규모가 2020년 42조 원에서 2023년 113조 원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23%를 전망하고 있다. 이에 (주)크랩스는 (주)크랩스만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통해 시장 우위를 확보하고 B2B 및 크리에이터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진입 전략을 세웠다. 김태영 (주)크랩스 대표는 “AI 기반 동영상 제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AI 기술로 창작자와 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크레플(주)
서은석 대표

(주)크랩스
김태영 대표



생성형 AI로 선보이는 금융 서비스

원라인에이아이 정한열 대표

- ◎ 주요 기술 금융 특화 생성형 AI
- ◎ 주요 제품 금융사 생성형AI 종합솔루션 올라(OLA), 올라(OLA) 금융 챗봇, 글로벌 금융 인텔리전스 피놀라 (Finola)
- ◎ 홈페이지 www.onlineai.com, www.finola.io

원라인에이아이는 금융사에 특화된 생성형 AI 솔루션을 제공한다. 금융권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 도입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도 금융사들이 여전히 직면한 데이터 및 인력 부족, 빠른 기술 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원라인에이아이의 주요 제품인 올라(OLA)는 금융데이터와 생성형AI를 결합하여 금융사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금융사들은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올라(OLA)는 금융사 맞춤형 리포트 디자인, 데이터 연동, 커스터마이징 항목 등을 지원해 금융사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원라인에이아이는 금융 생성형 AI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을 목표로 한다. 현재 원라인에이아이는 북미, 베트남, 인도, 중동 등 신흥 금융시장 정보를 포괄하는 글로벌 금융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피놀라(Finola)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 및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원라인에이아이는 2024년 9월 올라(OLA) 서비스 출시 이후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했고 향후 베트

남 진출을 위해 현지 업체와의 MOU도 완료했다. 꾸준히 성과를 이루며 도약하고 있는 원라인에이아이는 창업 첫해인 2023년에는 매출 3,600만 원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20억 원, 2027년에는 168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한열 원라인에이아이 대표는 “앞으로도 금융사들의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소형 은행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액 성능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

휴켄브레인 박세웅 대표

- ◎ 주요 기술 리튬 이차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솔루션
- ◎ 주요 제품 고성능 배터리 대응 가능 TPPS 구조 기반 이차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 ◎ 홈페이지 개발 중

휴켄브레인은 차세대 에너지 화학소재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리튬 이차전지용 전해액 첨가제 솔루션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다. 2022년 9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창업해 전해액 첨가제 핵심 원천 특허를 출원하고 엔젤투자 유치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TIPS) 과제에 선정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리튬 이차전지 전해액 첨가제로 전지의 수명과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재료다. 전해액 첨가제는 전해액 내 2~3% 정도로 소량 첨가되지만 전해액 제조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소재다. 현재 사용되는 주요 첨가제들의 지적재산권은 일본 기

업들이 독점하고 있어 휴켄브레인의 기술력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휴켄브레인은 고성능 전해액 첨가제로 TPPS 구조 기반 신규 물질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이 첨가제는 기존 상용 첨가제 대비 고출력, 장수명 성능지표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며 특히 양극의 니켈 함량이 80% 이상인 고용량 양극 대응성이 뛰어나다. 또한 구조적으로 보조 첨가제의 사용이 불필요해 전지 제조 비용 면에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한다. 한편 휴켄브레인 박세웅 대표는 “2032년까지 5,700억 원 규모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21세기 백정’ 국내 최초 도축 무인화 시스템 도입

로보스 박재현 대표

- ◎ 주요 기술 비정형 생체 머신비전 딥러닝 AI
- ◎ 주요 제품 도축 자동화 로봇, 육가공 자동화
- ◎ 홈페이지 www.robos.one

로보스는 생체 형상 학습 AI 기반 도축 자동화 로봇과 사물 형상 학습 AI 기반 공정 자동화 로봇을 주요 제품으로 삼고 있다. 로보스는 유연한 사고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가치를 창출하며 끊임 없는 진화와 신뢰를 제공하는 가치를 추구한다. R&D 중심에서 재무, 기획, 해외 전략, 영업 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구소와 양산 조직을 분리해 기술 성장과 매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로보스의 주요 기술로는 비정형 생체 머신비전 딥러닝 AI가 있다. 이 기술을 통해 로보스는 매일

4,000개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누적 300만 개 이상의 생체 데이터를 딥러닝해 최적화된 머신비전 기술을 개발한다. 로보스는 다양한 로봇 플랫폼과 모듈을 개발해 도축 자동화 로봇, 육류 비전 AI 포장 자동화 솔루션, 공정 및 물류 자동화 로봇 솔루션 등 고객 맞춤형 로봇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로보스는 국내외 시장에서 도축 자동화 로봇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와 동물 복지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 만큼 정밀한 로봇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글로벌 전략을 통해 캐나다, 미국, 호주, 유럽, 일본,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 진출하고 있다. 고가의 외국산 장비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도축장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로보스는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

로보스
박재현 대표

휴켄브레인
박세웅 대표

원라인에이아이
정한열 대표



‘디지털 기술’로 다시 살아난 옥외광고

옥외광고가 디지털 테크와 결합하면서 DOOH(Digital Out of Home media)로 불리며 전통 매체의 탈을 벗고 뉴미디어로 자리 잡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의 크리스마스 미디어파사드부터 서울시 캐릭터 해치 등 DOOH 마케팅에 주력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다양한 사례와 함께 옥외광고 시장의 현황과 DOOH 트렌드를 조망한다.

Profile. 김나연

- 이노션 인사이트전략본부 본부장
-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5> 공저 등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화려한 옥외광고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옥외광고는 사실 아주 오래 된 전통매체 중 하나다. OOH(Out Of Home)라는 의미 그대로 건물 외벽뿐 아니라 엘리베이터나 택시, 버스정류장 등 집 밖에 나서는 어디서든 쉽게 만날 수 있는 미디어지만 콘텐츠의 창의성과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효과 측정 또한 쉽지 않다는 이유로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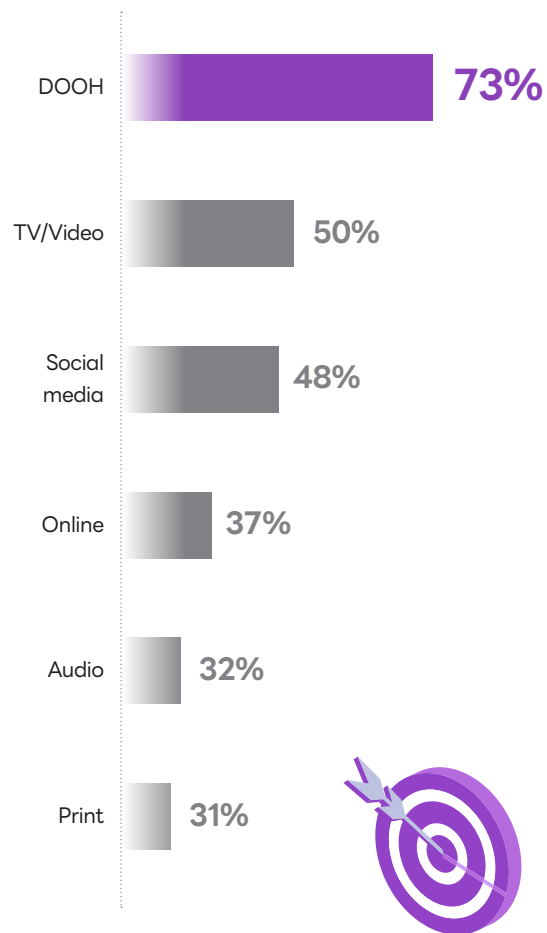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옥외광고에 대한 관심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광고·마케팅 전문 기관인 WARC에서 발표한 <2025 미디어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매체 중 옥외매체만이 유일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옥외광고가 주목받게 된 것은 디지털 기술이 결합돼 옥외광고판의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콘텐츠 측면에서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해지고 있는 옥외광고의 유형

옥외광고 콘텐츠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착시효과를 통해 마치 실제 사물이 튀어나오는 듯한 입체감을 주는 3D 아나모픽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옥외광고(DOOH, Digital Out of Home)다. 크리스마스 미디어 파사드쇼로 유명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작년에 신규로 구축한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동감 있게 구현 중이다. 샤넬의 코코크러시 반지, 서울시의 캐릭터인 해치, 한국의 국가유산인 청동 용이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은 기존의 평면적인 옥외광고와

달리 강렬한 시각적 자극과 몰입감을 주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광고임에도 인터랙티브 경험을 구현해낼 수 있게 된 점도 옥외광고의 매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코카콜라가 2024년 4월 ‘플레이어블 빌보드’라는 이름으로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선보인 디지털 옥외광고는 소비자들이 소파에 앉아 디지털 광고판을 보면서 탁구를 변형한 아케이드 게임인 ‘퐁’을 즐길 수 있도록 해 화제가 됐다. 이처럼 옥외광고판과 소비자가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옥외광고판 간의 상호작용으로 주목도를 높이는 사례도 있다. 2023년 앤어워드(A.N.D.Award)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뉴발란스의 옥외광고는 인접한 두 개 건물의 광고판 간 스토리가 연결되는 심리스 싱크(seamless sync) 캠페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동안 옥외광고는 한 번 설치하면 철거 전까지 콘텐츠나 메시지를 바꾸기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날씨나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해 실시간으로 광고 소재를 변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프로그래매틱 디지털 옥외광고(pDOOH)도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눈이 오면 눈 테마의 콘텐츠가 송출되고, 기온이 올라가면 그에 맞는 메시지가 송출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현실의 경계를 넘는 페이크 옥외광고(fake OOH)까지 등장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주기도 한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컴퓨터그래픽을 통해 마치 특정 공간에 설치된 것처럼 보이는 페이크 옥외광고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온라인에서 화제성을 만들고 있다.

디지털 옥외광고 효과 조사



출처 미국옥외광고협회X해리스 폴

옥외광고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

다양하게 진화한 옥외광고 유형을 보면 옥외광고가 특정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노출되는 광고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이 결합되면서 옥외광고는 다채롭고 인터랙티브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채널로 발전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매체라는 특성을 활용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브랜드를 알리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행동이 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옥외광고의 효과 또한 재평가받고 있다. 미국 옥외광고협회와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폴(The Harris Poll)의 2024년 5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옥외광고의 경우 다른 전통적인 매체에 비해 소비자들이 가장 호의적으로 평가하며 광고를 본 후 해당 브랜드를 검색하거나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채널을 방문하고 앱을 다운로드하는 등 모바일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도 수많은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는 이 시대의 소비자들은 특별한 경험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만약 이동 중에 접하는 옥외광고가 색다른 재미를 주거나 호기심을 자극한다면 바로 자신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해 해당 브랜드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는 옥외광고가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것은 물론 실제 브랜드 활동에 도움이 되는 행동까지 유도할 수 있는 매체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옥외광고의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바이럴 효과로 옥외광고의 공간적인 한계 또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징어게임2> 출시를 앞두고 넷플릭스가 강남역에서 진행한 옥외광고 퍼포먼스다. 넷플릭스는 2024년 8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공개일을 전 세계 동시 발표하기에 앞서 출근 시간대에 서울 강남대로에서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진행 요원과 동일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오징어 게임> 시즌2 옥외광고의 가림막을 제거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 퍼포먼스를 본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인증 사진을 올렸고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 진행한 이색적인 퍼포먼스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미국 옥외광고협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의 80%는 재미있고 창의적이거나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옥외광고를 보면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할 가능성이 높으

며 이러한 특성은 Z세대로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처럼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매체가 있다는 것은 마케터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집 밖의 모든 공간이 옥외광고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알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I가 결합되면 개인에게 맞춤형된 콘텐츠를 송출한다거나 소비자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등 상호작용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옥외광고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을지 기대해볼 만하다. 

이노션에서 기획 및 제작, 운영 중인
신세계스퀘어 '청동용' 콘텐츠
(©이노션)



배당을 활용한 법인가업 절세 방안

Profile. 신방수

-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한다. 보통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고 다음 해 3~4월
중에 배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형적인
이익배당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다. 하지만 배당은 연도 중에도 할 수
있는 '중간배당'이 있다. 배당의 종류와 함께
중간배당을 통한 절세 방안을 알아보자.

*본 칼럼은 2025년 2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배당 종류

구분	내용	비고
이익배당	결산에 따라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	상법 제462조
중간배당	회계연도 중에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하는 것(연 1회)	상법 제462조의3
현물배당	현물로 배당하는 것	상법 제462조의4
감액배당	자본잉여금으로 배당하는 것	상법 제461조, 제461조의2
주식배당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	상법 제462조의2

이익배당은 결산에 따라 나온 잉여금을 주주들이 받는 전형적인 배당 형태(주주총회 의결)다. 배당금은 통상 주주총회 승인 뒤 1개월 안에 지급한다. 중간배당은 회계연도 중간에 배당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연간 1회만 가능하다. 이때 반드시 현금으로 배당해야 하며 미리 정관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한편 현금이 아닌 부동산과 같은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관련 규정이 미리 있어야 하며 배당 시 현물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법인의 자본잉여금을 감액해 배당할 수도 있고 이익잉여금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다.

중간배당 시 절세 방안

1 배당 시기를 조절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지급 금액의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 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이때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는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로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물론 이 금액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가 생각보다 크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간배당 등을 통해 배당 시기와 배당액 등을 잘 조절해 운용하면 소득세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

2 배당으로 주식가치를 줄이면 기업 승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많이 보유하면 주식가치가 커져 상속·증여 시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배당 등을 통해 잉여금을 줄이면 주식가치가 줄어들므로 상속세 등이 절감될 수 있다.

3 가지급금의 상환이나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중간배당을 활용해 이를 상계하면 인정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주주인 대표이사 등이 퇴직하는 경우 배당소득이 노후 대비용으로 훌륭한 구실을 하게 된다.

4 증여 대응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나 배우자가 주주일 때 그들에게 일정 부분 배당소득을 분배하면 증여 없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다. 만약 주식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 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 이때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중간배당이 좋은 절세안이 되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해야 한다. 중간배당은 배당이 가능한 이익(순자산가액-자본금과 이익준비금 등)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당은 주주의 지분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주식 소유 비율과 다르게 배당하면 불균등하게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배당소득의 크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발생함에도 유의해야 한다. 임원인 주주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지역에서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약 임원이 아니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에서 보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았다.

중소기업의 상생 금융 파트너 IBK기업은행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2025년 새해 첫 현장 소통 행보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지난 1월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5가지 중점 과제로 ▲핵심 가치인 중소기업금융 강화 ▲고객과 사회를 위한 미래 가치 제고 ▲부문별 균형성장을 통한 융합가치 창출 ▲철저한 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를 통한 튼튼한 은행 완성 ▲반듯한 금융 완전 정착을 제시했다.

김성태 은행장은 “기업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력 강화를 지원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힘을 보태고 기업 생애주기별 성장 사다리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경제 활력 제고의 마중물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시무식을 마친 김성태 은행장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에 적극 지원하고자 현장 소통에 나서며 새해 첫 일정으로 수원특례시를 찾았다. 수원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구천동 공구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정부 및 은행권과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2025년에도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진심을 전했다.



글로벌 코스메틱 기업, 선도적 제품 기획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C&INTERNATIONAL | (주)씨앤씨인터내셔널 임직원 일동

굳은 의지가 있으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If you have an iron will, you will achieve your goal.



(왼쪽부터) (주)씨앤씨인터내셔널 배수아 대표이사,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주)씨앤씨인터내셔널 배은철 대표이사, 성기훈 부사장.



국내 1위 포인트 메이크업 화장품 개발 및 생산 기업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2025년 처음 방문한 거래 기업은 1997년에 설립된 (주)씨앤씨인터내셔널로, 기초화장품, 클렌징 제품부터 립 제품을 중심으로 한 색조화장품 등의 ODM(제조업자 개발생산)·OEM(주문사 상표 부착 생산) 전문 기업이다.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와 협업해 색조화장품을 공급하는 B2B 사업 모델도 운영한다. 주요 고객사는 아모레퍼시픽, 3CE 등 국내 브랜드와 세포라(Sephora), 로레알(L'Oréal), 에스티로더(Estée Lauder) 등의 글로벌 브랜드가 있다.

(주)씨앤씨인터내셔널은 지속적인 수동성이 강했던 전통적인 ODM·OEM에서 브랜드사의 신제품 아이디어 기획 영역을 ODM 사의 업무 영역으

로 전환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으로 2021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됐으며 삼천만불 수출탑, 오천만불 수출탑, 칠천만불 수출탑을 연이어 수상했다.

2025년, (주)씨앤씨인터내셔널은 다시 한번 도약한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주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중국 상하이 법인은 주요 고객사 물량이 경쟁사에서 (주)씨앤씨인터내셔널로 이관됐다. 용인 공장 증축 완료와 2026년 완공 예정인 청주의 공장 부지 매입으로 생산 효율 향상도 기대된다. 

대표이사 배은철, 배수아 | **주요 사업** 화장품 ODM
설립일 1997년 10월 (법인 전환 2013년 10월)
본사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5길 39
홈페이지 www.cncocosmetic.com

지금 세계는:



@shutterstock

트럼프 “부가세, 대미 관세와 동렬에 놓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5일(현지 시각)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사실상 동렬에 놓고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상응해 부과하는 개념인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非)금전적 관세와 무역장벽을 상호 관세 부과에서 고려할 것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미국에서 당신의 제품을 제조하면 관세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르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관광세 폭탄’ 현실화



일본의 ‘벚꽃 시즌 관광세 폭탄’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벚꽃 시즌을 앞두고 일본 대표 성들이 줄줄이 입장료 인상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2월 17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가장 먼저 관광세 인상에 나선 곳은 효고현 히메지성이다. 히메지시는 현행 1,000엔(약 9,500원)인 입장료를 내년 3월부터 2,500엔(약 2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체감이야 몇만 원대지만 150%에 달하는 인상률이다. 입장료 인상뿐만 아니다. 지자체들은 숙박세 인상을 통한 관광세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 일본 내에서 또 다른 유명한 성으로 꼽히는 오사카성과 나가노현 마쓰모토성 입장료도 오는 4월부터 인상된다.



94%

개혁 조치로 아르헨티나 경제 체질을 개선했다는 호평을 받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다. 그가 추천한 밌코인(유행성 코인)이 폭락하면서 사기 의혹에 휩싸인 탓이다. 밀레이 대통령이 최근 중소기업에 유리한 가상화폐라며 리브라 밌코인을 추천하자마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가격이 한때 5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최고가 대비 94% 폭락한 0.19달러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위기의 인텔, TSMC 등 인수 검토



인텔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매각설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브로드컴과 대만 TSMC가 각각 인텔의 일부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밝혀졌다. 브로드컴은 인텔의 반도체 설계 및 마케팅 부문을, TSMC는 인텔의 반도체 공장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의 인텔 공장 운영을 지지할 가능성은 작다. 한편 인텔은 인공지능(AI) 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반도체 수탁생산업체로 변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트럼프 정부가 관련 부처 공무원을 대거 해고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 주도로 연방정부 감축 작업이 진행 중이며 필수 인력까지 해고하는 등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비판 받고 있다. 미 농무부 산하 국립동물보건소네트워크 프로그램 사무국 직원 25%가 해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달걀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0.25%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이 기준금리를 연 4.50%에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의 인하로 기준금리는 2023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0%에서 0.75%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과 2027년 전망치는 각각 1.50%로 상향 조정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말 3.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5억 달러

일본 정부는 차세대 초박형·경량·유연 태양광 패널 개발을 위해 15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세키스이화학에 최대 1,570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필름 개발을 지원한다. 이 기술은 탄소 중립, 경제 성장,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카드로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0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BYD 등 중국 전기차 ‘딥시크’ 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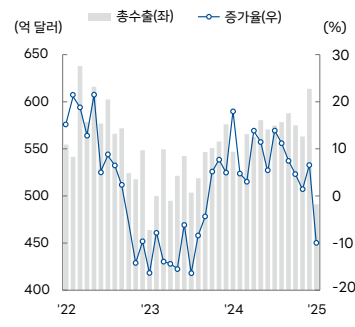
BYD와 지리자동차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딥시크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잇달아 채택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 등이 포함된 스마트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왕찬푸 BYD 회장은 2월 10일 중국 선전 본사에서 개최한 스마트전략 발표회에서 “앞으로 출시하는 모든 차량에 딥시크와 협업해 개발하는 자율주행 시스템 ‘갯스아이(God’s eye-신의 눈)’를 탑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딥시크 도입’ 열풍은 중국 주요 산업에서 동반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hutterstock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Korea

수출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

1월 수출은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4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했다. 석유·철강제품, 승용차, 선박 등의 주력 품목 수출이 감소했지만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하면서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2월 1~10일의 수출은 6.4% 감소했다.

※ 1월 국가별 수출(% , 전년 동월 대비) :
(중국) -14.0%, (미국) -9.4%, (EU)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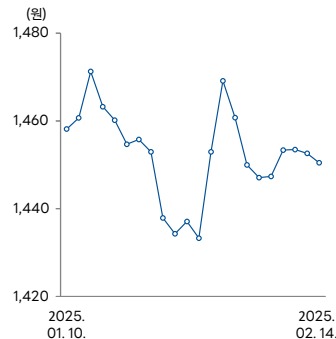
물가 상승폭 확대

1월 소비자물가는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유가도 상승하면서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1.0→7.3%)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물가도 보험료 인상, 여행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2.9→3.2%)됐다.

※ 두바이유 가격(\$/배럴) :
72.6('24.11) → 73.2('25.1) → 80.4('25.1)

Exchange Rate

달러/원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2월 환율은 트럼프 리스크에 변동성 대 (2025.2.3일 1,453원→ 2.4일 1,469.2원 → 2.14일 1,450.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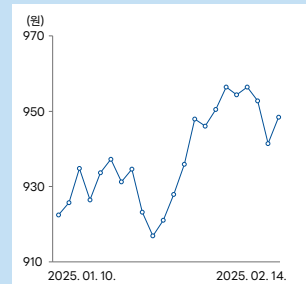
1월 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유가와 금리 인하 의지를 표명하자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며 한 달여 만에 장중 1,420원대까지 하락했다. 설 연휴 이후 트럼프發 관세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글로벌 무역전쟁이 시작될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은 다시 1,470원까지 급등했지만 이내 협상 기대감이 커지며 1,450원대로 하락한 후 관망세를 이어갔다.

2025년 1분기 말 환율 전망은 1,454원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11개사)의 2025년 1분기 말 달러/원 환율 전망은 평균 1,454원으로 조사됐다. '1,470원 이상'으로 전망한 IB가 4개사로 가장 많았다.

* 환율 전망 응답 시기 : 2025.1.27~2025.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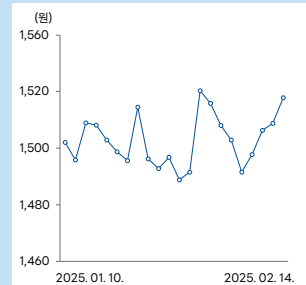
원/100엔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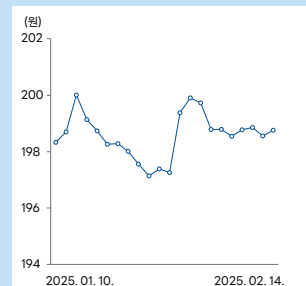
원/유로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위안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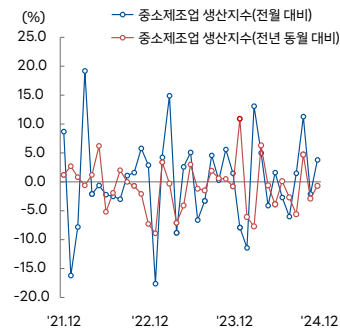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Small Business Trends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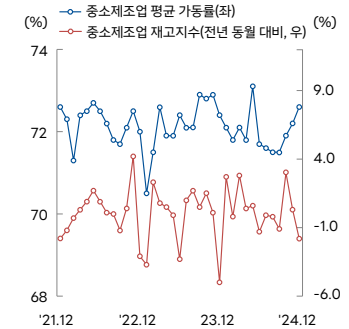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생산, 전월 대비 증가

2024년 12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3.8% 증가한 반면 전년 동월 대비로는 0.7%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반도체(5.6%), 자동차(10.7%), 의약품(11.5%) 등에서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감소한 업종은 통신·방송장비(-12.9%), 화학제품(-2.0%), 1차금속(-2.2%) 등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반도체(13.9%), 의약품(27.7%), 금속가공(10.8%)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기장비(-9.2%), 1차금속(-3.0%), 석유정제(-2.7%)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가동률, 전월 대비 증가

2024년 12월 중소제조업 전체 평균 가동률은 전월 대비 증가해 72.6%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소기업(5~49인)은 0.5%포인트 감소한 68.5%, 중기업(50~299인)은 1.4%포인트 증가한 77.1%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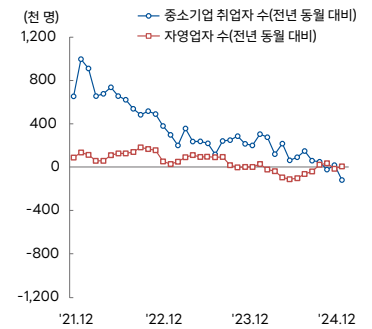
* 2023년 1월 조사부터 신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재고, 전월 대비 감소

2024년 12월 중소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8%p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1차금속(3.5%), 자동차(2.8%), 통신·방송장비(11.3%)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28.4%), 전자부품(-15.4%), 석유정제(-5.5%)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고용



자료 통계청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감소

2024년 12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 7,000명이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7,000명이 증가했으며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는 12만 4,000명이 감소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48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4년 12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000명이 증가해 557만 4,000명을 기록했다. 📈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정신계 질병 발생, 산업재해가 맞는지 아닌지 헛갈려요.

Profile. 윤형석

- 인사노무컨설팅 올 대표
- 전 이랜드그룹 패션사업부 인사노무팀
- 전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1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영자로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 상담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발단은 인사팀에 입사한 한 직원입니다. 자신의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힘들다며 타 부서로 이동을 시켜달라고 상급자(팀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팀원들 앞에서 몇 번 지적을 받기도 했고 그 탓인지 위촉돼 팀원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업무를 제때 끝내지 못하니 야근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당시 상급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직원은 인사팀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업무 스트레스가 과다하다며 다시 부서 이동을 요청해 왔고 전 타 부서에 지금은 자리가 없으니 공석이 생기면 옮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및 '수면장애' 진단서를 떼서 가져오더라고요. 회사에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겼으니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유급 병가를 달라고요. 직원이 아프다니 안타깝긴 하지만 그 원인이 회사에 있다고 어떻게 판단하죠? 이게 정말 산업재해가 맞나요? 대체 정신질환의 정확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노동법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전문 노무사가 사연 상담을
해드립니다. 사연은 웹진에
마련된 의견 남기기를
이용해 보내주세요.

New message

From 윤형석 노무사
Subject Re: 노무사님, 산업재해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는 산업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정의하는바 근로자의 정신질환도 경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상 질병과 관련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한 위험 요인을 다루거나 노출돼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당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혼합형 불안과 우울장애, 수면장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울에피소드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증상을 일으켜 동기, 인지기능, 정신운동 활동,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정신질환을 의미하며, 진단을 위한 필수증상은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 기분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의 흥미 상실이며 식욕, 체중, 수면, 정신운동활동이 변화하고, 전반적인 에너지의 감소, 무가치감 또는 죄책감,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의 부가적인 증상이 따릅니다. 이에 **질병 감별을 위해 투약 기록을 포함한 자세한 의무기록 및 과거 병력, 평상시의 성격과 행동 양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불안장애란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일상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입니다. 이에 의무기록, 과거 병력, 임상심리검사 결과, 평상시의 성격과 행동 양상, 지속 기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수면장애란 수면의 연속성과 질, 입면에 문제가 있는 장애로서 불면증이 대표적입니다. 야간 및 교대근무로 발생하는 수면장애는 다른 질환으로 인한 2차성 수면 증상을 배제한 후 진단이 가능할 것이며 근무 중 과도한 졸림과 수면을 취해야 하는 시간대의 불면증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에 **다른 정신질환이 동반돼 있지 않음을 확인해야 하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의의 진료**가 선행돼야 할 것이며, 일주기 리듬의 교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 2주 이상의 수면 기록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진단과 소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해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주치의 의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학병원 산업의학과에서 관련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후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사건을 이송하게 되며 심의 기간을 거쳐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당해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승인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

Reply

Forward

Cancel

글. 한명훈

영화 <인터스텔라>

푸른 행성의 약속 지속가능성을 향한 리더십의 여정



©워너브러더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 쿠퍼

개봉 2014.11.06.
장르 SF
감독 크리스토퍼 놀런
출연 매튜 맥커너히, 앤 해서웨이,
마이클 케인, 제시카 찰스테인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쿠퍼가 블랙홀을 지나
희망을 찾았듯 기업도 지속가능성을 향한 길을
찾아야 한다. ESG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리더의 약속이다.
푸른 행성을 위한 약속을 실천할 시간이다.
리더여, 당신의 기업은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속가능한 경영이 곧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되는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Profile. 한명훈

- 아테네학당 대표
- <언택트 리더십 상영관> 등

인류는 항상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왔다. 유랑
하며 불을 발견했고, 강을 따라 도시를 세웠으며,
기계를 발명하며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
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그 어떤 변화보다 거대
하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사회적 불평등은 인류
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영화 ‘인터스텔
라’의 지구는 생명을 부양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
황폐해진 땅, 불어닥치는 먼지 폭풍, 점점 사라져
가는 자원…。 주인공 쿠퍼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
아 우주로 향한다. 그의 여정은 탈출이 아니다. 남
겨진 사람들을 위한 선택,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기업의 리더들도 비슷한 기로에 있다. 성장의 한

계를 마주한 시장, 빠르게 변하는 환경, 지속가능
한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이제 기업은 단순
한 이윤 창출을 넘어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
가라는 질문과 마주해야 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
조) 경영은 생존의 문제다.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영화 ‘인터스텔라’는 단순한 우주 탐사 영화가
아니다. 리더십 이야기다. 쿠퍼와 그의 동료들은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 블랙홀을 넘어서고, 예측
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며 예상보다 더 큰 대가
를 치른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는다. 답을 찾
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다. ESG 경영 역시 그렇다. 지속가능성은 선언하
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이익
을 위해 환경을 소모하고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
는 기업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비용이 들고, 친환
경 전환은 복잡하며,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경영
은 즉각적인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투자 없이는 기업도, 사회
도 살아남을 수 없다. 리더십이란 결국 눈앞의 이
익보다 더 큰 가치를 바라보는 능력이다. 쿠퍼가
딸 머피를 믿고 지구를 구할 계획을 실행한 것처
럼 기업도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ESG 경영: 지속가능한 리더십의 조건

오늘날 기업 경영의 중심에는 ESG가 있다. 환
경보호(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윤리적
지배구조(Governance)는 이제 투자자와 소비자들
이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다.

그러나 ESG 경영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다.
그것은 기업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을 실천
하는 과정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이끄는 리더
라면 쿠퍼처럼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한다.

첫 번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쿠퍼
가 가족을 위해 먼 미래를 내다봤듯 리더는 단기
적인 이익이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성
을 고민해야 한다.

두 번째, 혁신과 적응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블
랙홀을 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접근법을 찾았던
것처럼 기업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혁신하고 적
응해야 한다.

세 번째, 책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는가? 영
화 속 NASA는 인류를 위한 책임을 다하려 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소비자
와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제 ESG 경영
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지속가능성을 고려
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다. 과거
의 방식을 고수하는 기업은 블랙홀의 중력처럼 점
점 경쟁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주인공 쿠퍼는 인류가 살아남을 새로운 행성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이
가능했던 이유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동료들과 협력하고, 딸 머피와 신뢰를 쌓으며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갔다. 기업의 지속가능성도
마찬가지다. ESG 경영은 한 명의 리더가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함께 움직일 때 진
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리더는 구성원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끄는 존재여야 한다. 🚀

시간의 소중함...

잘 늙음에 대하여

100세 시대를 맞아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 늙어간다는 아쉬움을 느끼는 때는 거울을 보고 늘어나는 흰머리와 주름을 확인할 때가 아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기 시작하면 나 자신도 그만큼 세월에 떠밀리는 신세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늙는다는 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노화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있다고 말한다.

중년 이후는 노화로 인해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인 능력이 쇠퇴하는 시기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실을 맺는 시기다. 인간관계에 점차 환멸을 느껴 고독을 좋아하고, 세상에 헛된 희망을 갖지 않으며, 죽음을 앞두고 더욱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기다. 중년 이후에는 인지능력, 기억력, 생명력이 쇠퇴하지만 젊은이처럼 걸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사물의 바탕에 관심을 갖게 된다. 사고력이 더 나아져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판단력과 분별력이 좋아져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알게 되며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거리를 두게 된다. 중년 이후인 인생의 후반기에 인간은 행복이 환영이고, 고뇌가 현실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고통이 없는 확실한 상태를 추구한다.

Profile. 강용수

- 고려대 철학연구소 연구원
-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나체 작품의 재구성> 등

@unsplash

노년기는 젊을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인지하면서 고통에 대해 잘 견디는 법도 배운다. 더욱 성숙한 관점에서 세상의 공평함을 알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젊을 때 누렸던 즐거움을 더 이상 맛볼 수 없다고 해서 늙음을 탄식해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빨라진다. 하루하루가 쏜살같이 지나간다. 인생의 속도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릴 때는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졌다면 늙으면 그런 따분함은 없어진다. 젊을 때 인생은 ‘무한히 긴 미래’처럼 보이지만 노년기에서 보면 매우 ‘짧은 과거’다. 청춘의 수많은 꿈과 희망은 노년에는 불안과 절망으로 바뀐다. 산을 오를 때는 보이지 않던 목적지가 내리막을 내려올 때 비로소 보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종착지인 죽음이 보인다.

노년에 시간이 더욱 빠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정신력의 저하와 기억력의 감퇴로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무뎌지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모든 사물이 신기해서 하나하나 또렷하게 기억에 새겨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년에 아무 생각 없이 살다보면 하루는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만다. 따라서 늙을수록 의식과 지성 활동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진 책 읽기, 메모하기, 새로운 경험은 뇌의 근육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젊을 때는 미처 몰랐던 시간의 소중함을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청춘의 열정은 사그라들었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노화를 통해 겪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퇴화는 완속된 지혜를 통해 채워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젊을 때의 하루는 당연한 권리지만 노년의 하루는 감사해야 할 일이다. 📖

현대인의 고민, 튼튼한 허리를 유지하려면

앉아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허리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몸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바른 자세로 건강하게 오래 일하고 싶은 사람,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등 모두에게 필요한 허리 튼튼 코어 운동이다.



코어 근육(Core muscles)은 인체 중심을 이루는 근육을 말한다. 대표적인 코어 근육 중 앞쪽에는 복횡근, 위쪽은 횡격막, 아래는 골반기저근, 뒤쪽은 척추기립근이 있다. 하지만 코어 근육은 29쌍으로 생각보다 많다. 코어 근육은 속근육과 겉근육으로 이뤄져 각각 역할이 다르다. 속근육은 직립과 자세 유지, 호흡에 관여하고 안정성을 제공한다. 겉근육은 속근육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움직임을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발생한다. 따라서 특정 코어 근육보다 전체적인 균형과 적절한 움직임을 고려한 코어 운동이 필요하다.

코어 운동 중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허리디스크에 맥킨지 신전 운동이 좋다고 했는데 운동 후 더 아프기도 하다. 플랭크와 같이 지면에 팔꿈치를 대고 배를 띄워 버티는 운동 후 아프다는 사람도 있다. 누워서 다리 들어올리기도 마찬가지다. 이는 때론 내 몸에 맞지 않는 무리 되는 동작과 자세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어 운동은 잘못이 없다.

모든 운동은 효과가 있으나 통증, 질환이 있을 때 내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핵심은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회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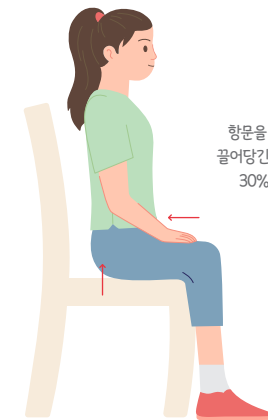
빠르고 더 효과적이다. 이쯤 되면 ‘아프면 운동하지 않고 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은 약해지고 몸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급성기와 수술 직후를 제외하면 운동은 꼭 필요하다.

허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코어 운동 원칙을 알아보자. 첫째, 운동 시 통증이 생기면 멈춘다. 둘째, 천천히 부드럽게 운동한다. 셋째, 운동 동작 유지 시 8초를 넘기지 않는다. 넷째, 숨을 참으며 힘주지 않는다. 다섯째,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이 하는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마지막에 한다. 여섯째, 시간을 내어 몰아서 운동하기보다 나눠서 운동한다. 일곱째, 스트레칭, 저항운동, 유산소운동을 균형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젊었을 때 운동을 즐기던 사람과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의 몸 상태는 다르다. 건강했던 옛 시절보다 지금 상태를 반드시 살피고 안전하게 운동하자. 

Profile. 안병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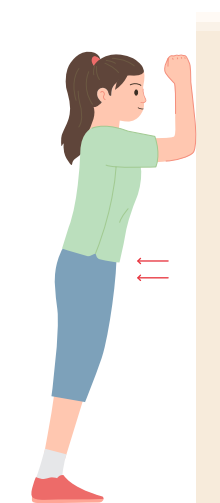
- 바디안 대표
- 단국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겸임교수
- <매일통증> <4050 생활습관 리셋> 등

허리 튼튼 3가지 코어 운동



항문을 배꼽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30%만 힘준다.

① 아랫배 당기고 항문에 힘주기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복횡근과 골반기저근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숨을 자연스럽게 내신 후 아랫배를 안쪽으로 당긴다. 항문을 배꼽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30%만 힘준다. 아랫배를 당기고 항문에 힘준 상태에서 2초간 유지한다. 15회씩 2세트 반복한다.



복근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2초간 유지한다.

② 수건으로 허리, 엉덩이 근육 버티기

골반 중립 자세에서 수건을 이용해 허리 근육(요방형근)과 엉덩이 근육(대둔근)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수건을 길게 접어 허리와 엉덩이에 놓는다. 수건 잡은 손을 앞쪽으로 살짝 당긴 후 2초간 버틴다. 이때 허리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10회씩 2세트 반복한다.



수건 잡은 손을 앞쪽으로 살짝 당긴 후 2초간 버틴다.

③ 벽 대고 플랭크

서서 복근을 강화하는 운동법이다. 벽에 똑바로 서서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고 놓는다. 두 발을 한 발자국 뒤로 옮긴다. 복근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2초간 유지한다. 운동 강도가 쉽게 느껴지면 발을 5cm씩 뒤로 이동해서 벽 대고 플랭크를 늘려간다. 10회씩 2세트 반복한다.

IBK역사관 전시자료 및 에피소드 공모

창립



주년

IBK역사관 본점 건립을 맞이하여

IBK가 걸어온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인

고객과 직원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를 수집하여

영원히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채택 시 소정의 사은품 제공)

2025.03.10 (월) ~ 04.10 (목)

수집내용

사진자료 : 과거 지점사진, 기념앨범 등
 도서자료 : 정기, 비정기 간행물 등
 발간물 : 브로슈어, 리플렛 등
 상장, 상패 : 각종 표창 증서, 메달 등
 에피소드 : IBK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 등

접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E-mail을 전송한다.

자료 제공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고
 자료와 관련한 일화 등 사연도 기재요망

수신처

IBK 경제연구소 IBK역사관 TF팀
 김성민 과장 : 02-729-6867, history@ibk.co.kr
 성효진 과장 : 02-729-6458

기업은행이니까 유연도 믿고 맡깁니다

지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객과 기업 곁을 지켜 온
 IBK기업은행

그 변치 않는 믿음을 알기에
 인생의 마지막, 소중한 유산까지
 맡기고 싶습니다

믿음직한 상속으로 내 뜻을 지켜주는
IBK 내뜻대로 유연대용신탁



믿을 수 있는 국책은행

63년 역사의 국책은행으로
 장기간 신뢰할 수 있는 계약관리



내뜻대로 상속설계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상속 설계



간편한 신탁계약

형식이 엄격한 유언장 대신
 신탁계약 체결만으로 유사 효과



안정적인 상속집행

신탁 전문가와 함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상속 집행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979호(2024.10.15.) 유효기간(2025.10.14.),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197호(2024.10.16.~2025.10.15.) ※자세한 문익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 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격변동,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IBK 내뜻대로 유연대용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나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의 기본계약보수는 신탁원본의 0.5%, 집행보수는 신탁원본의 0.2~0.8%, 운용보수는 운용자산별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참고바랍니다.